

## 미국 기업들 “임금 못 올리니 팁 챙겨라”



▲ 미국 기업들이 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해 팁을 급여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기업들이 직원 급여를 인상하는 대신 고객에게 더 많은 팁을 요구하며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주점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쿠키·음료 판매점, 가진 수리업체 등도 팁을 요구하면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아시아경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직원 관리 업체인 훌베이스 조사 결과 중소기업 517개 중 16%가 고객들에게 결제 시 팁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2%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기업들을 대상으로 급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페이팩스는 팁으로 급여 일부를 충당하고 있는 직원 비율이 2020년 5.6%에서 올해 5월 기준 6.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지급하는 팁 금액도 늘어났다. 급여 정보 제공업체인 거스토가 30만개의 중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레스토랑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 직원들이 시간당 받는 팁은 2019년 평균 1.04달러에서 올해 6월 기준 1.35달러로 30% 늘었다. 서비스 산업 근로자가 5월 받은 임금은 시간당 16.64달러, 팁은 4.23달러로 팁이 전체 임금의 5분의 1을 차지했다.

사투 자야라만 캘리포니아대 식품노동 리서치센터 소장은 “무리한 팁 요구는 소비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해 직원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데스밸리 '죽음의 더위' 체험 관광객 행렬

데스밸리에 극한의 무더위를 체험하려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 걸쳐있는 협곡인 데스밸리(Death valley) 국립공원의 울여름 기온이 125° F(51.6° C)를 넘나드는 가운데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스밸리는 1913년 기온이 화씨 134° F(56.6° C)까지 올라 한때 세계 최고를 기록한 곳이다. 울여름엔 이미 지난 14일 화씨 130° F(54.4° C)를 찍어 종전 기록을 위협하는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데스밸리 주요 지점마다 “사람 잡는 더위” (Heat kills!) 등의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관광객 발길이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 데스밸리에 비치된 온도계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관광객. 사진=AFP연합뉴스

지 않는다. 방문객 안내소에서 온도계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관광객들이 폭염에 놀라 불과 1~2분 만에 모두 안내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 현장 직원은 “울여름 초에는 사람이 많이 안 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이곳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일손이 바빠졌다.”면서 “폭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8일 데스밸리 하이킹 코스에서 71세 남성이 쓰러진 것을 포함해 7월에만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데스밸리 측은 3월, 4월, 7월, 8월이 각각 성수기로, 이때 한달 방문객이 10만명 정도라고 밝혔다.

## “SNS가 학교·학생 망친다”... 교육구들 집단소송

미국 교육구 수백 곳이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을 상대로 SNS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전국 약 200곳의 교육구가 SNS 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며 “원고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소송전은 지난 1월 시애틀에서 시작했다. 시애틀 교육구는 소장에서 SNS에 접근하기 시작한 취학연령 아동의 자살 및 자살 시도, 정신건강 관련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SNS 기업들이 학생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도록 제품을 설계해 정신건강 위기 등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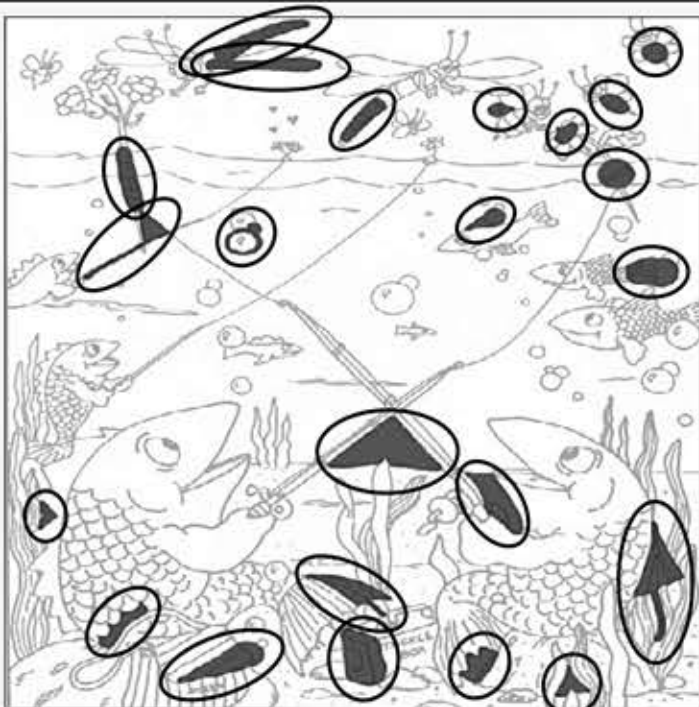


▲ 다수의 미국 교육구는 SNS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shutterstock

시애틀 교육구는 교사나 관리자들이 SNS를 통한 학생들의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고 SNS 중독으로 불안이나 우울증, 자살 충동을 겪는 청소년을 상담하느라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금전적 손해배상과 SNS 과다사용에 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 등의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같은 논리를 내세운 소송이 플로리다주,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했다.

SNS 기업들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법 230조를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 측은 “문제는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유해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라인댄스 초,중급 반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